

## 6월 둘째 주 공지 드립니다.

### 지난주 활동-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Joaquin Miller Park 에서 야외미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 주신 덕분에 야외미사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주셔서 셋업 도와주시고 뒷 정리 함께해주신 김정호, 차아름, 전진영, 허성운, 이영재 형제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미리 바베큐 준비를 도와주신 권창모, 문지영, 김정호, 전진영, 차아름, 김희원, 박보라 형제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풍성한 음식을 제공해 주신 차영화 리디아 자매님 (차아름 자매님 어머니) 과 영순 쩜마 자매님께 특별한 감사 드립니다.

### 6월 12일 연도 후, 설거지 봉사

이번 주일날 연도 후 설거지 봉사를 하모니가 맡기로 했습니다. 점심식사 성당에서 같이 하시고, 연도 후 음식 서빙과 나중에 뒷정리 함께해요!

### 부회장 선출

부회장으로서 하모니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함께 봉사할 의향이 있는 분은 회장단에게 연락 주세요. 새로운 부회장 선출에 관심있으신 분들, 또는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주저마시고 돌아오는 6/12일 주일까지 알려 주세요.

### 2016년 연수: 7월 30-31일

산타크루즈 Villa Maria del Mar 피정센터(<http://www.villamariadelmar.org>)

숙박 시설 및 식사준비 관련하여 인원조사가 필요합니다. 연수 참가 희망하시는 분들 **RSVP**해주세요.

### 환영합니다!

새로오신 이영재 루카 형제님 반갑습니다!

---

## <6/12일 복음 말씀>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 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36—8,3<또는 7,36-50>

그때에 바리새가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 바리새이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 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안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하모니 [harmony catholic@gmail.com](mailto:harmony catholic@gmail.com)

### 2016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박보라 율리아나 [917-817-8908](tel:917-817-8908)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 [1-510-553-9434](tel:1-510-553-9434)

[www.oakcc.org](http://www.oakcc.org)